

제5장. 풍수지리의 혈장 형성론

(1) 풍수지리의 명당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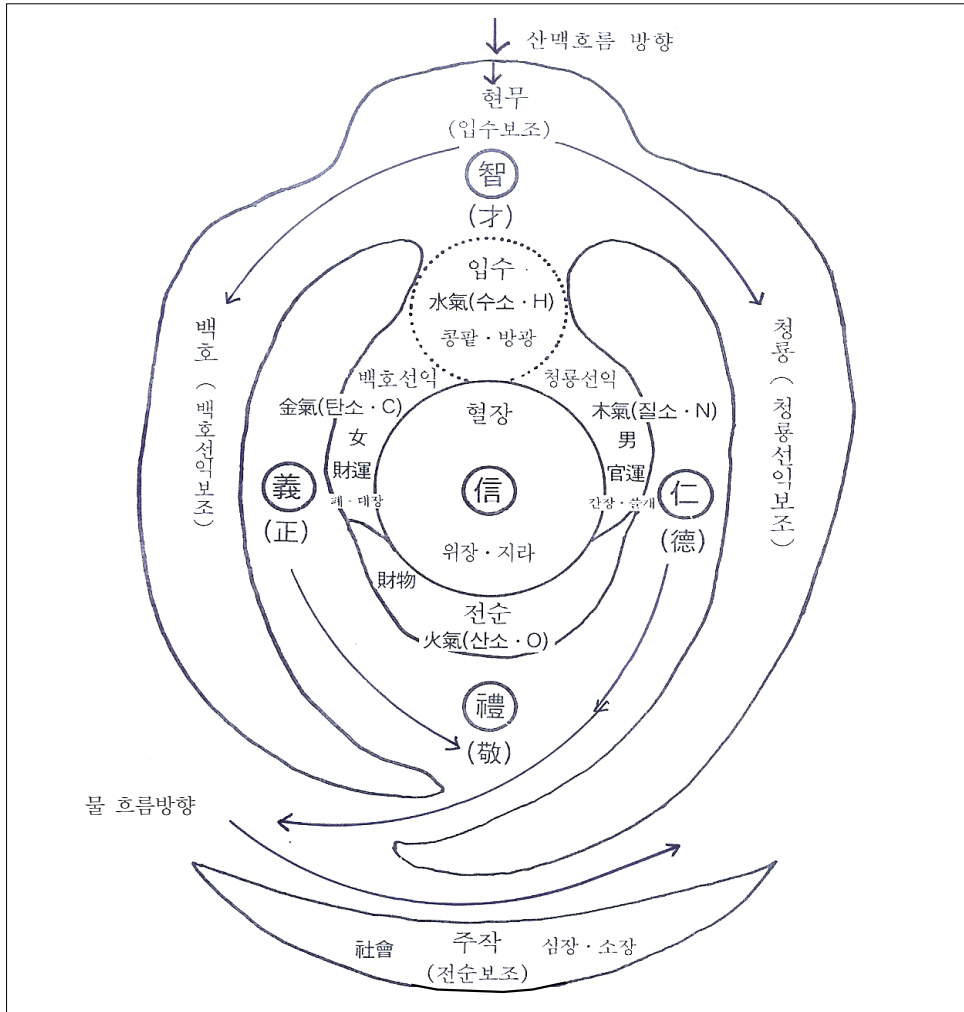
좋은 명당이란 주변의 산세(山勢)와 국세(局勢)가 사신사(四神砂)(현무, 청룡, 백호, 안산)를 갖추어, 지기에너지를 보호, 육성, 응축하여, 혈장(穴場, 혈터)을 형성한 곳으로 귀(貴)·부(富)·손(孫)의 에너지를 발현하여 후손과 거주자에 생기에너지를 공급하는 곳이다. <그림 14>

(2) 사신사 내의 혈장(穴場, 혈터) 조건과 유형

혈장이 되려면, 주변 국세가 사신사(현무, 청룡, 백호, 안산)를 갖추어야 하듯이, 혈장도 4가지 요건인 혈장의 사신사(입수, 청룡선익, 백호선익, 전순)를 갖추어야 완벽한 혈장이 된다. 선익(蟬翼)은 혈장 주변에서 혈장을 감싸는 매미 날개 모양의 작은 사(砂, 작은 산가지)로서 혈장을 보호, 응축하는 역할을 한다.

- ① 입수 두뇌(入首 頭腦)는 혈장 윗부분에 해당되며, 땅 기운의 입력 에너지로 판단력을 관장하며 장손에게 많은 에너지를 공급한다.
- ② 청룡 선익(靑龍 蟬翼)은 입력에너지의 좌측부분으로서 명예, 아들, 관운출세, 인문계의 에너지를 발현한다.

〈그림 14〉 사신사 기본구도(혈장에너지 취합 및 역할)



- ③ 백호 선익(白虎 蟬翼)은 입력에너지의 우측부분으로 머느리, 딸, 재물, 이공계의 에너지를 발현한다.
- ④ 전순(鼯脣)은 혈을 아래에서 지탱해주고 혈의 생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며, 社會運, 남의 도움을 나타내며, 일 의 마무리 역할을 한다.

혈장은 혈장형태(혈형, 穴形)에 따라서, ① 와혈(窩穴), ② 겸혈(鉗穴), ③ 유혈(乳穴), ④ 돌혈(突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정혈법(定穴法)과 지기에너지 발현

풍수지리에서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변수는 크게 4가지이다.

① 영혼·업력 에너지 25%(목표지향의 개인 노력), ② 생활환경에너지 25%(좋은 생활공간)이며, 조상에너지 50%에서는 ③조상에너지는 선천종성에너지 25%(개인의 유전적 특성), ④후천 환원 에너지 25%(조상 명당의 기운인 음덕(陰德))로 구성된다.

(4) 풍수지리에서 보는 3대 길지(혈장특성에 따라 3대 吉地 形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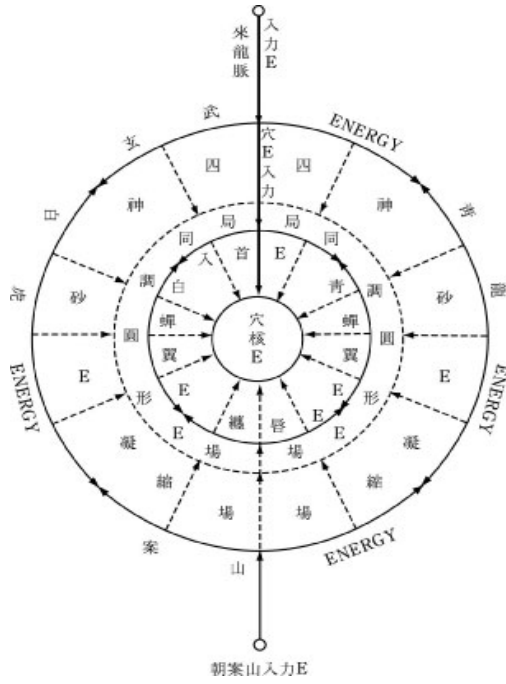
- ① 귀(貴-출세, 선출직과 임명직 관운, 직장운, 활동 무대)
- ② 부(富-재물은, 인생은 재물 얻고 쓰고 모으고 늘리는 활동연속)
- ③ 손(孫-자손번창, 가문의 행복과 영속성)

▣ 별첨 1. 혈장형성 원리와 유형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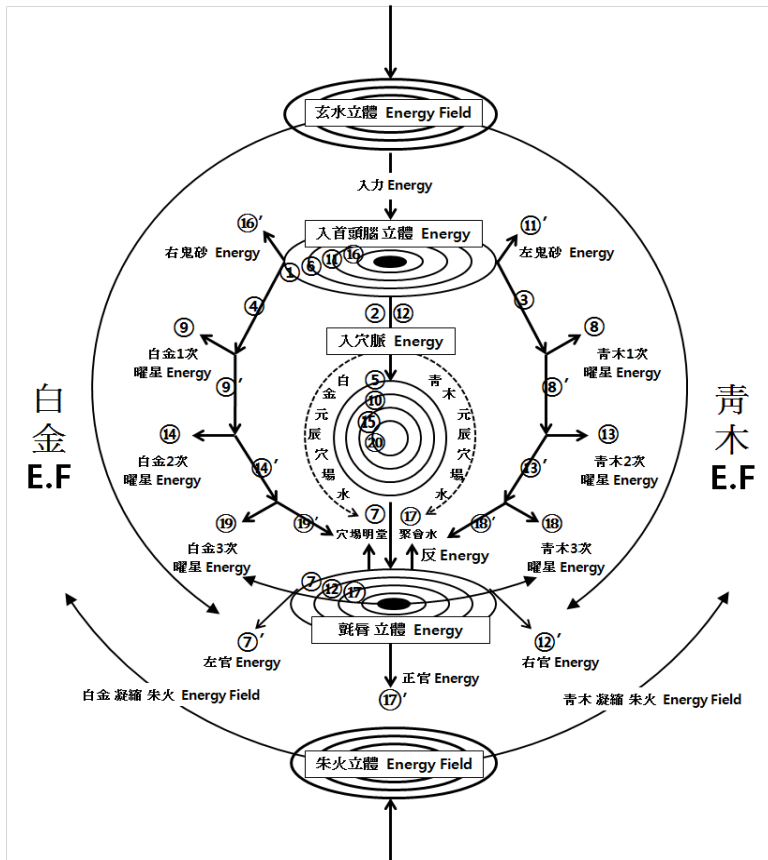
가. 혈핵에너지의 형성 원리

혈장(혈핵에너지)은 내룡맥 입력에너지와 이를 맞아주는 조산과 안산 종축 입력에너지, 좌청룡 에너지와 우백호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는 상하 좌우 중심점에 형성하게 된다.<그림 15>

〈그림 15〉 혈핵에너지의 생성원리도



〈그림 16〉 혈장 형성 원리도



내룡맥은 산과 산 사이에서 지표에너지를 이동시켜주는 중간 용맥으로서 단절되거나 파손되지 않으며 튼튼하고 깨끗해야 한다. 내룡맥의 변화가 그 최상의 안정 변위각도인 $\Theta = \angle 30^\circ \times n$ 법칙질서¹³⁾에 부합하는 변위 각을 유지하는 來龍이 가장 이상적인 脈勢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으며 生龍¹⁴⁾이라 할 수 있다.

내룡 맥세의 변화질서¹⁵⁾를 확인하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장(穴場)이 형성되기 위한 來龍脉의 흐름은 태조산(太祖山)에서 출맥한 수많은 취기 집합 입체 에너지體가 분벽(分擘)¹⁶⁾과 변역(變易) 과정을 거듭하면서 중조산(中祖山)과 소조산(小祖山)을 거쳐 현무정(玄武頂)을 비롯한 청룡, 백호, 안산(주작)의 사신사(四神砂) 국(局) 에너지場을 형성하게 된다.

현무정에서 다시 출맥(出脉)한 입수맥(入首脈)은 사신사 에너지장(Energy Field)의 동조응축장(同調凝縮場) 안정처(安定處)에서 각종 에너지장의 연분사(緣分砂)를 만나 혈장(〈그림 16〉의 ⑤⑩⑮⑳ 원형 부분)을 형성하게 된다. 이 혈장에 대자연의 생명 에너지가 동조¹⁷⁾·응축¹⁸⁾되는 것이다.

13) 산맥의 진행각도가 30도 각도나 30도 각도의 배수인 60도, 90도로 꺾여 진행해야 살아있는 산맥이다(黃英雄, 風水原理講論, 동국비전, 2002, pp.198-199). 본 연구에서는 생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산맥은 모두 무기맥(無記脈)으로 포괄적인 정의를 한다.

14) 살아있는 生龍은 산맥의 기복과 굴곡의 변화가 질서정연하게 왕성한 龍이다.

15) 산맥의 변화질서는 크게 정변역, 수변역, 종변역, 횡변역, 은변역 등 5변역의 변화질서가 있다(黃英雄, 風水原理講論, 동국비전, 2002).

16) 분벽(分擘, 分劈)은 산맥이 두 갈래 이상으로 갈라지는 것을 말한다. 용이 가지에서 또 가지를 나누고 맥을 나누는 것이다(서선계·서선술, 한송계 역, 『풍수지리 명당전서』, 명문당, p.77).

17) 동조(同調)란 어떤 존재의 특성을 생성시키고, 육성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작용.

여기서 각종 에너지장 연분사(緣分砂)란 혈장을 보호(保護) 육성(育成) 응축(凝縮)해주는 국사신사(局四神砂, 현무, 청룡, 백호, 안산)를 비롯한 24방위의 모든 사(砂)와 수(水)의 에너지장을 말하며, 이들이 형성해 놓은 혈장 사신사(입수두뇌 에너지체, 전순 에너지체, 청룡 선익, 백호 선익 에너지체), 천체(天體)에너지장까지 함께 포함한다.

이들 각종 연분사 에너지장은 혈장보다 먼저 혈 주변에 도달해 상호작용을 한다. 이때 來龍脉으로 부터 혈장을 만드는 천심맥¹⁹⁾(穿心脈)에너지체가 그 본연의 핵 생명 생기 의지를 발로(發露)하면서 동조 에너지장 형태 속에 천심 입맥(入脉)하여 혈장에 핵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

〈그림 16〉과 같이 ①차 에너지는 현무정에서 출맥한 來龍脉이 3출맥(三出脉)으로 진행하여 좌출맥은 혈장의 외청룡, 우출맥은 외백호가 되면서 사신사의 국(局) 에너지장을 형성하고, 가운데 중출맥은 혈장으로 입맥하여 혈장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선 에너지로 이동하는 지기에너지는 계속 진행하여 전순 에너지체 및 그 에너지장을 형성한 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은 순서에 의해서 ⑳번까지 영구안정특성원리에 의해 혈핵(穴核)을 응축하게 된다. 이러한 혈장 형성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응축(凝縮)이란 어떤 물체들이 외부작용에 의해 한 곳에 모여져 고밀도화되는 현상으로, 풍수에서는 혈핵(穴核)이 주변의 산들(사격)에 의해서 응축될수록 묘터와 집터는 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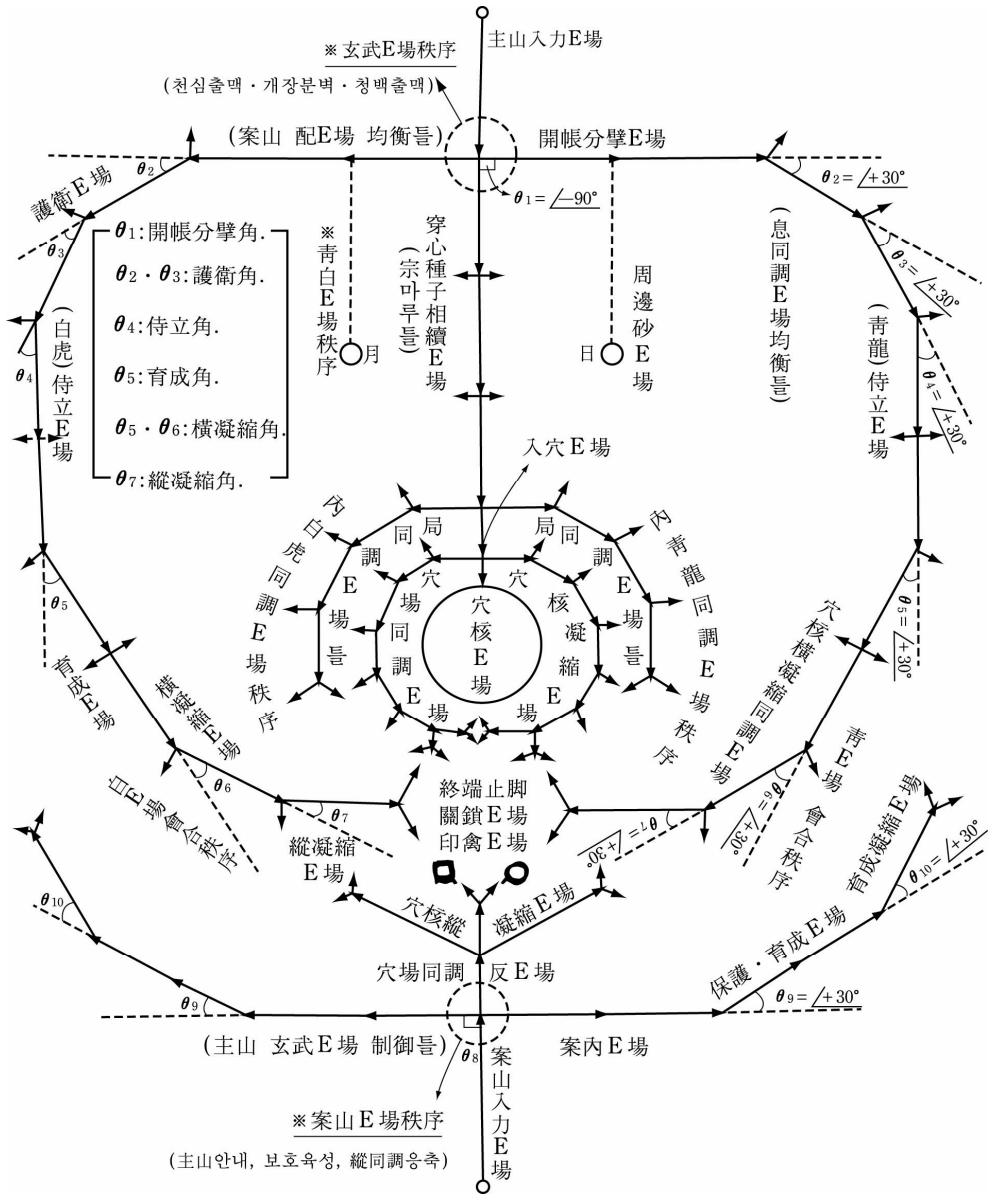
19) 천심맥(穿心脈)은 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산의 중심을 뚫고 가는 맥이다.

〈표 4〉 혈장 응축 동조 질서²⁰⁾

혈장 형성 특성원리	혈장 형성 에너지체	혈장 에너지 입력질서
안정·취기 특성원리	입수두뇌 Energy	① → ⑥ → ⑪ → ⑯...
직진(↓) 특성원리	입혈맥 Energy	② → ⑦ → ⑫ → ⑰...
좌선(左旋) 특성원리 ↓	좌귀(左鬼) Energy	③
	청룡요(淸龍腰) Energy	③ → ⑧ → ⑬ → ⑱
	청룡선익(淸龍仙翼) Energy	③' → ⑧' → ⑬' → ⑱' 보호 → 육성 → 응축
	좌관(左官) Energy	⑦'
우선(右旋) 특성원리 ↓	우귀(右鬼) Energy	④
	백호요(白虎腰) Energy	④ → ⑨ → ⑭ → ⑲
	백호선익(白虎仙翼) Energy	④' → ⑨' → ⑭' → ⑲' 보호 → 육성 → 응축
	우관(右官) Energy	⑫'
재 안정·취기 특성원리	전순 Energy	(② →) ⑦ → ⑫ → ⑰...
직진 反 E(↑) 특성원리	정관(正官) Energy	⑰'
영구 안정 특성원리	혈핵 Energy	⑤ → ⑩ → ⑮ → ⑳...

20) 이진영, 「에너지장론적 관점에서의 혈장분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 논문, pp.99-100.

〈그림 17〉 국 동조 에너지장의 형성질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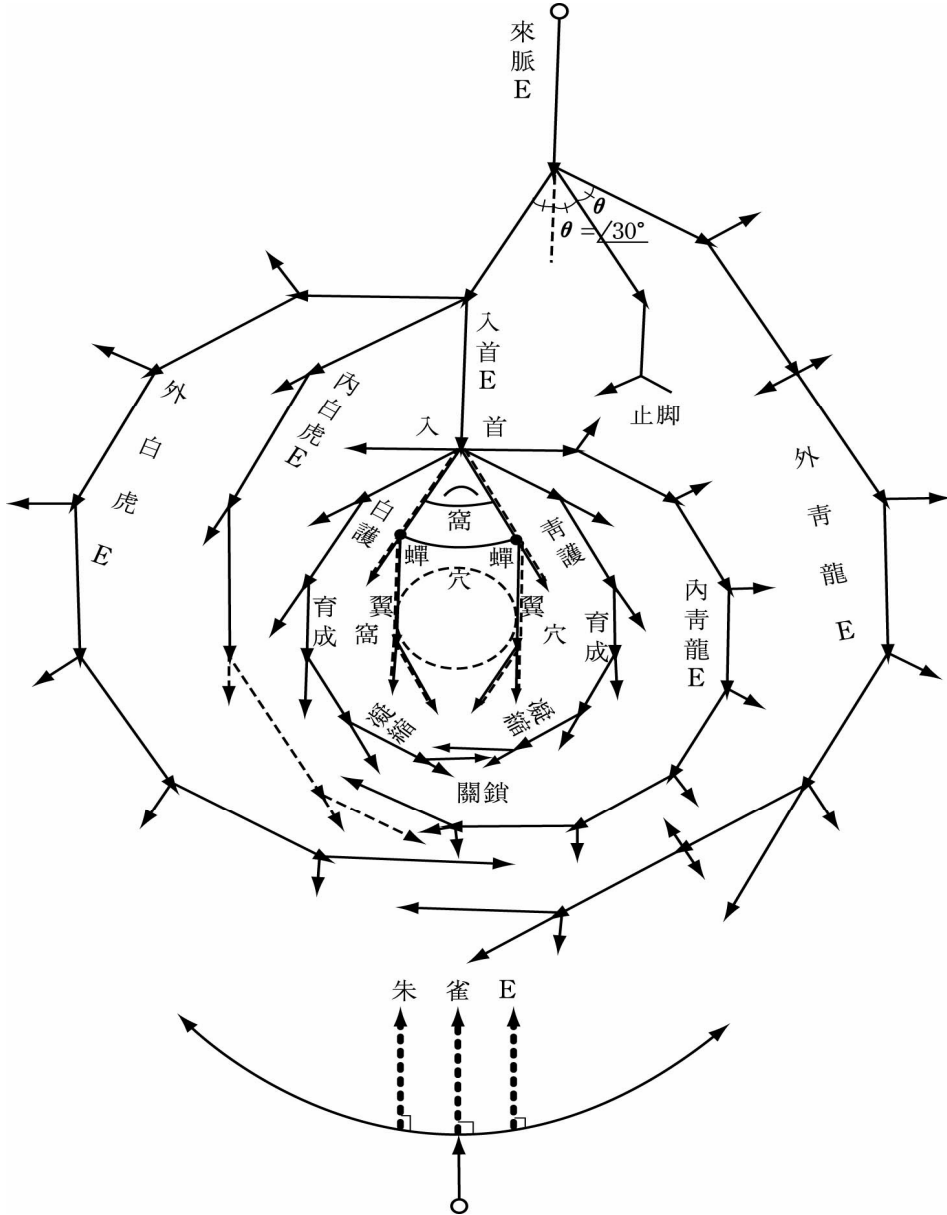


나. 혈장의 형태(穴形) 4가지 類型

- 1) 와혈(窩穴, 소쿠리, 삼태기 오목한 모양), 2) 검혈(鉗穴, 형벌도구 칼 모양), 3) 유혈(乳穴, 젖모양), 4) 돌혈(突穴, 평지 돌출 동산모양)

1) 와형(窩形)²¹⁾의 성혈 원리(成穴 原理)

〈그림 18〉 와혈 형성원리도



21) 소쿠리 모양, 오목한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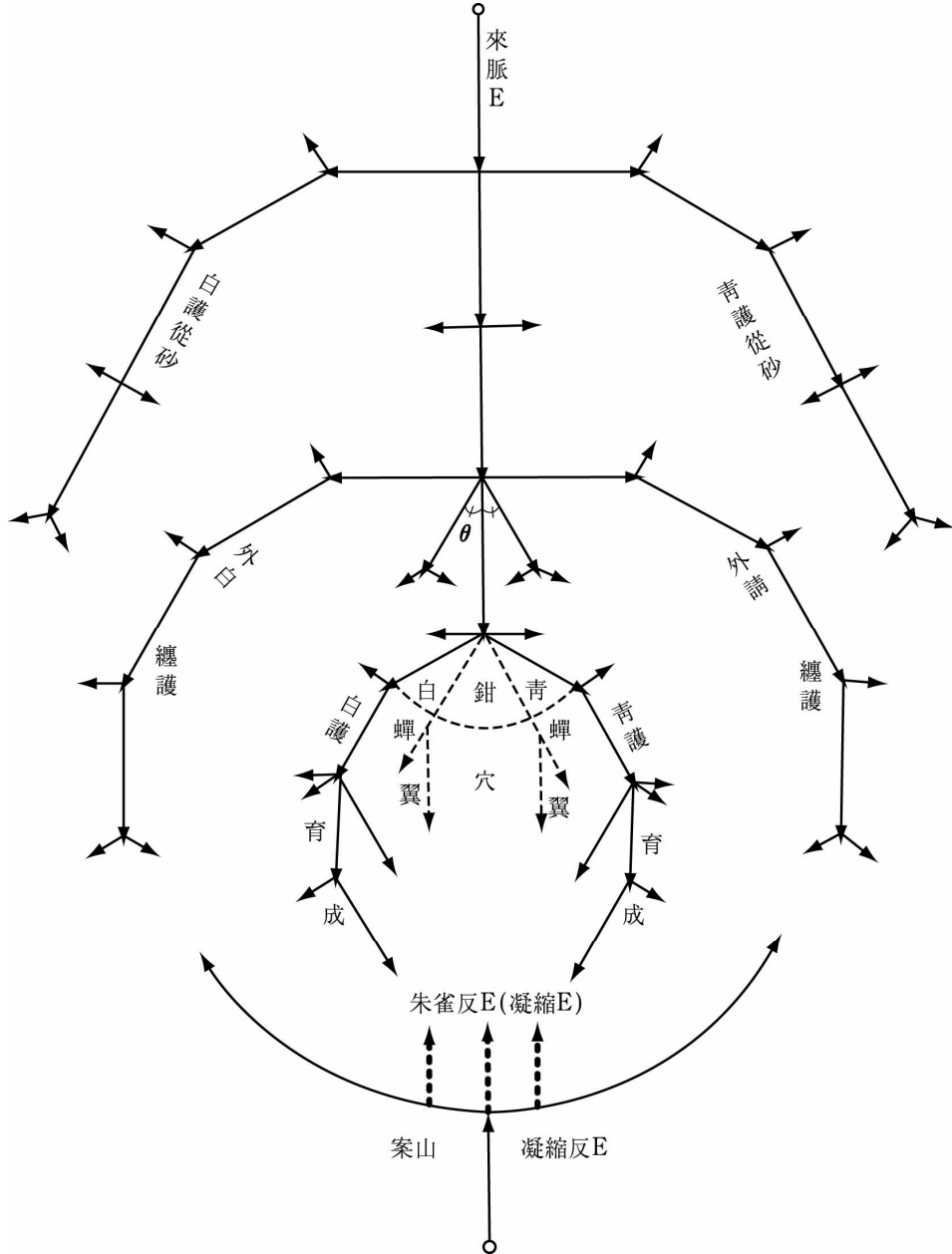
〈사진 5-1〉 김대중 전대통령 묘(오솔길 개념 진입로, 혈장을 감싸는 백호선익 바위가 진입로 좌측 맥문동 사이에 가로로 보인다)



〈사진 5-2〉 김대중 전대통령 묘
(묘두름돌이 없이 소박하게 조성한 와혈 형태 명당, 입수와 혈장을 감싸는 청룡선익)

2) 겸형(鉗形)*22)의 성혈 원리(成穴 原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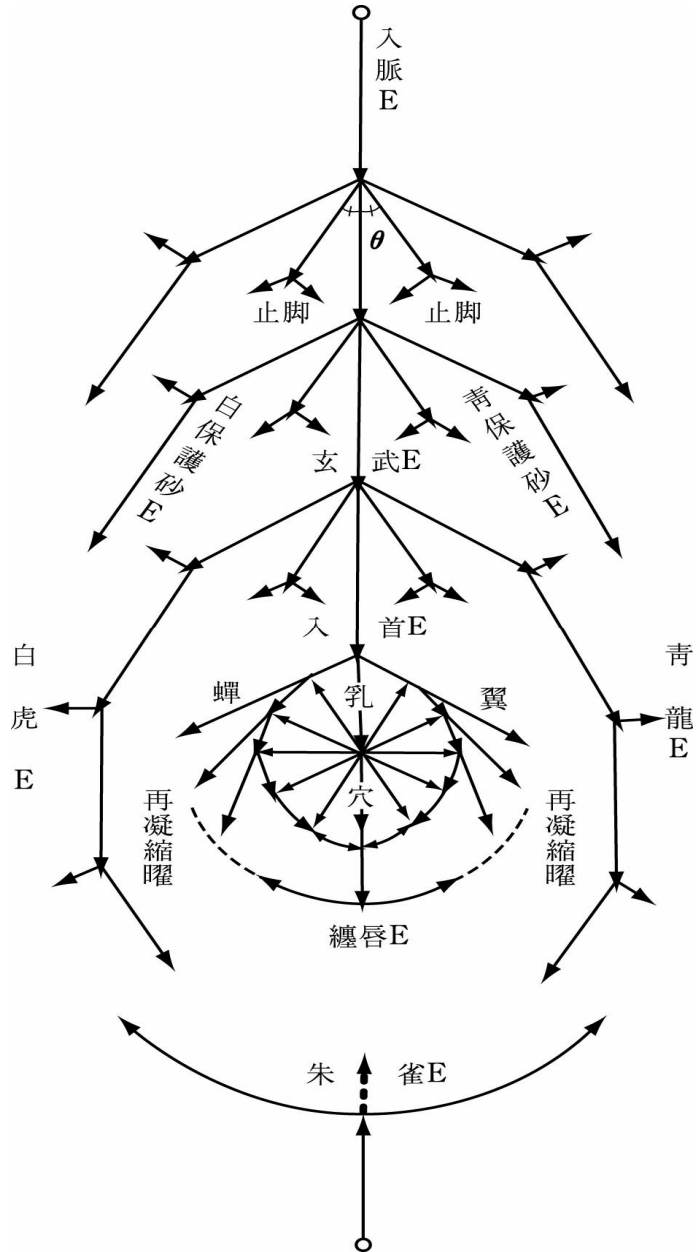
〈그림 19〉 겸형 형성원리도



22) 형벌의 일종으로 목에 씌우는 칼 모양.

3) 유형(乳形)²³⁾의 성혈 원리(成穴 原理)

〈그림 20〉 유형 형성원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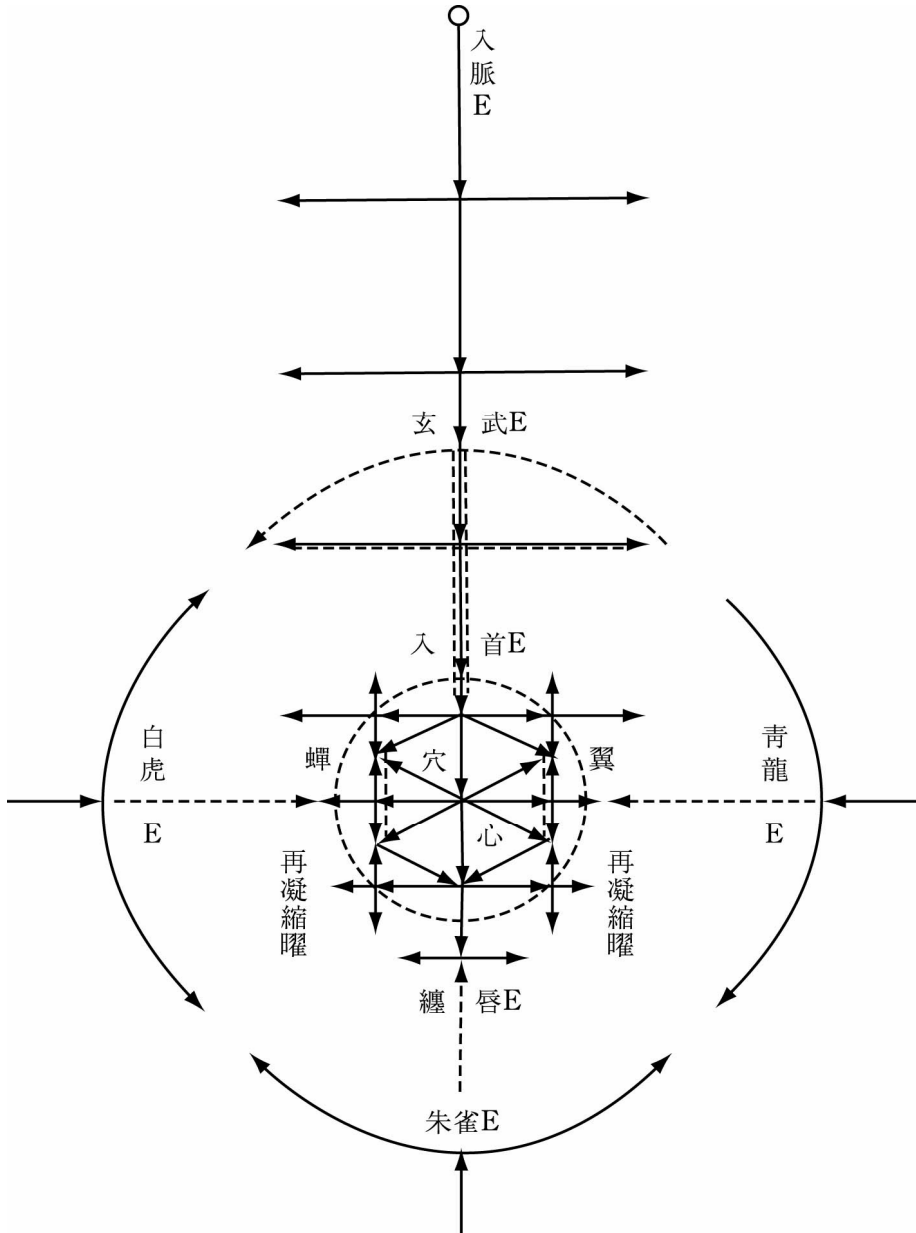
23) 젓 모양.



〈사진 5-3〉 조선중기 토정 이지함의 묘 - 유혈 형태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주교면 토정로1048(고정리 산27-3)

4) 돌형(突形)²⁴⁾의 성혈(成穴) 原理

〈그림 21〉 돌형 형성원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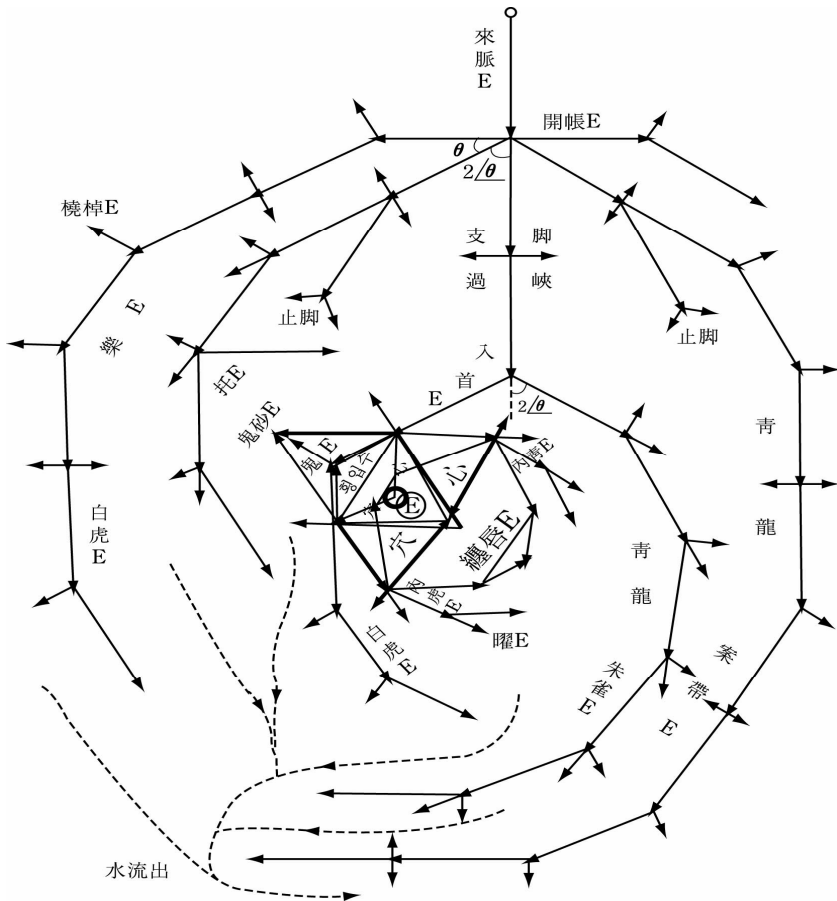
24) 평지에 동산처럼 튀어 오른 모양.

다. 횡맥(橫脉)입수(入首) 횡혈(橫穴)의 생성(生成) 原理

1) $\theta = \angle 30^\circ$ 를 변역각(變易角)으로, $\theta = \angle 60^\circ$ 이상의 개장(開帳) 또는 분벽각(分壁角)을 갖는다. 종변역에서 횡변역으로 본신룡이 옆으로 변화하여 진행한다.

2) 본신(本身) 내맥(來脉) Energy로부터 $\theta = \angle 30^\circ$ 의 내(內) 호종(護從) Energy를 얻지 못한 입수(入首) Energy가 안사(案砂)Energy와 낙(樂) Energy의 응기(應氣)와 응축(凝縮)을 받아 혈이 형성되는 구조가 이루어져서 성혈(成穴)이 되는 것이다.

〈그림 22〉 횡혈 형성원리도



3) 횡으로 진행하는 본산맥에서 횡혈이 형성되려는 필수 5가지 조건
첫째, 혈장 뒤편의 낙산(樂山)과 혈장 주변의 탁산(托山)의 상호작용을 받아서, 본산맥에서 $\theta = \angle 90^\circ$ 로 갈라져 나와서 횡혈을 만들기 위해 진행(입력)하는 입혈맥(혈장으로 산에너지를 입력하는 맥, 입수에서 혈장으로 에너지를 입력하는 혈장내의 맥)이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입혈맥에 본산맥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작은 산가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입혈맥과 같은 위치 뒷편(반대방향, 낙산이 있는 쪽)에서 입혈맥(혈장 쪽으로)으로 에너지를 입력시켜주는 사(작은 산가지)인 당배귀사가 있어야 한다.

셋째, 당배귀사(撞背鬼砂: 등 뒤에서 치는 작은 산가지)가 없더라도 당배귀사가 위치할 곳에서 1절 이내 떨어진 곳에서 좌우 균형되게 2개의 귀사(작은 산가지)가 나란히 붙어서 혈장으로(입혈맥 반대방향, 낙산쪽에 위치)에너지를 입력시켜주는 효순귀가 있어야 한다. 일단 당배귀사가 있든지, 효순귀사가 있든지, 이 두 가지 귀사가 모두 갖추든지 횡맥에서 $\theta = \angle 90^\circ$ 로 갈라져 들어가는 횡혈 입혈맥으로 산에너지를 입력시켜주는 사가 있어야 횡혈이 형성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넷째, 효순귀(孝順鬼) 또는 당배귀사가 형성되어서 혈장으로 횡룡의 산에너지를 입력시킨 후에, 그 횡룡은 갈라진 곳에서 2-3절 이내에 횡룡의 산맥이 끝나야 한다. 계속 진행하면 효순귀나 당배귀사가 아니라 횡룡 산맥을 진행시키는 요도나 지각이 되어서 혈이 형성되지 않는다.

다섯째, 횡룡이 효순귀를 지나서 바로 급하게 낮아지면서 횡룡의 산기운이 1차 마무리되는 모양을 갖추어야 한다. 횡맥의 산기운의 더 이

상 진행되지 않아야 횡맥의 기운이 횡혈 혈장으로 입력된다고 볼 수 있다. 횡룡이 낮아지지 않고 계속 진행하게 되면 본신룡 옆구리에 붙은 산가지에 불과하지 횡혈을 형성하기 위한 입혈맥으로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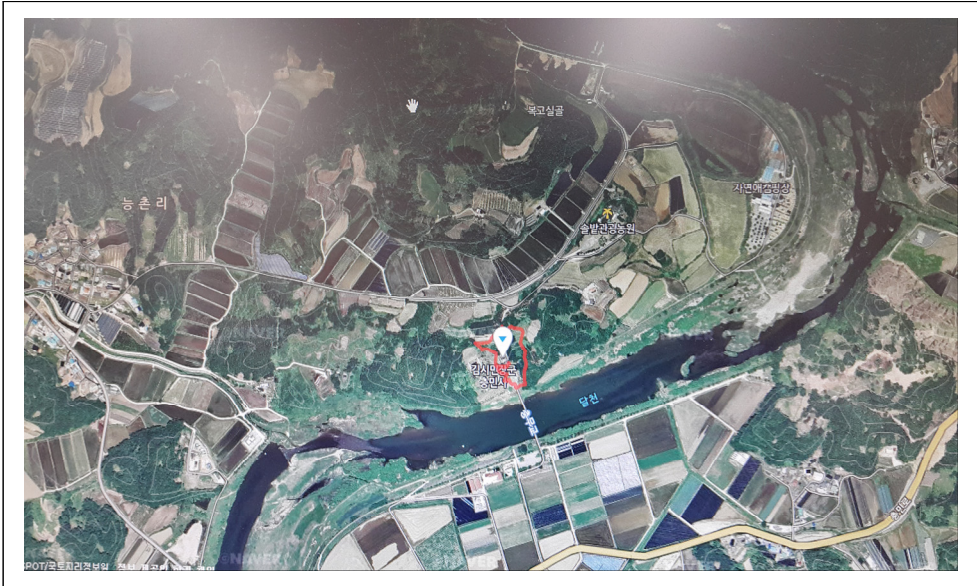
4) 효순귀(孝順鬼)는 횡룡에서 횡혈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룡(枝龍)이 直으로 進行하던 중 $\angle 90^\circ$ 角度로 변화하는 용맥(龍脉)에 생기(生氣)를 공급(供給)하는 사(砂, 산가지)이다. 본신룡(本身龍)이 진행방향(進行方向)으로 변화점(變化点)을 지나서, $\angle 90^\circ$ 각도 방향으로 역수(逆水)하는 형태의 사(砂)이다(횡혈 그림 참조). 횡룡의 옆구리에 나란히 2개가 균형이 되게 붙어서 횡맥의 진행에너지를 $\Theta = \angle 90^\circ$ 로 변화시켜 횡혈로 산에너지를 입력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사진 5-4〉에서 보면 혈장 뒤의 귀사에너지)

5) 당배귀사(撞背鬼砂: 혈장 뒤에서 혈장방향으로 바로 밀어주는 산가지)는 횡혈입수(橫入首穴)의 입수두뇌(入首頭腦)의 정후면(正後面)에 붙은 사(산가지)로 직접 횡혈장에 횡룡 산에너지를 $\Theta = \angle 90^\circ$ 로 변환시켜 입력해주는 역할을 한다(사진 5-4, 사진 5-5). 효순귀를 갖추거나 당배귀사까지 갖춘 형태일수록 직진하는 행룡이 혈장에 에너지를 입력하는 역량은 증가하게 된다.

6) 흔히, 동서로 진행하거나 맥의 남쪽 경사면에 양지가 바르다고 조성한 묘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횡혈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곳이라면, 지나가는 행룡의 옆구리에 묘를 쓴 경우에 지나지 않게 된다. 지기에너지의 입력이 없어 발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갑으로 살고 기관장 팽창, 후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7) 횡혈의 대표적인 사례는 임진왜란 1차 진주성 전투에서 승리한

김시민 장군의 묘가 모여진 충민사(충북 괴산읍 충민사길 46, 충주호로 유입되는 달천변)가 있다. 회룡고조 형태로 사당인 황조별묘(전남 해남군 산이면 덕송리 378-1)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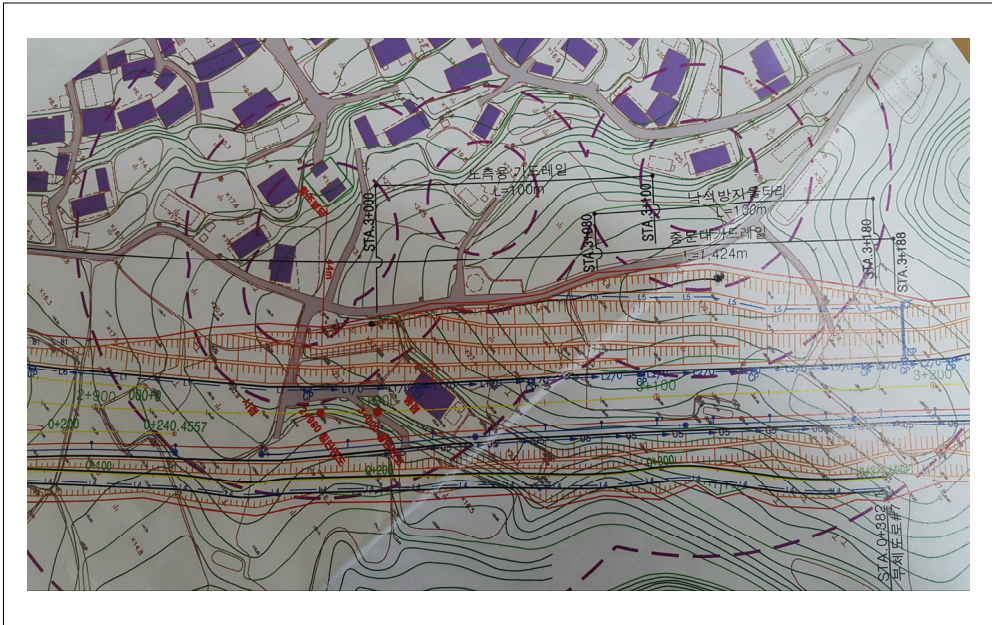
〈사진 5-4〉 충민사 내룡맥지도(충북 괴산읍 충민사길 460 위성지도)



〈사진 5-5〉 충민사 횡혈 혈장도(충북 괴산읍 충민사길 460 위성지도)



〈사진 5-6〉 황조별묘 횡혈 전경(전남 해남군 산이면 덕송리 378-1)



〈그림 23〉 황조별묘의 입력지기에너지 등고선도(제공: 대림산업)

▣ 별첨 2. 山脈(산맥)의 변화질서와 혈장분석

가. 산(山)의 변역(變易)과 연기 법칙(緣起 法則)

- 1) 정변(正變) 연기(緣起) (토성(土性) 變易(변역))
 - 직룡(直龍) 변화(變化) 특성
- 2) 횡룡(橫龍) 연기(緣起) (금(金)-水(수)성(性) 變易(변역))
 - 횡룡(橫龍), 회룡(回龍), 곡룡(曲龍) 특성
- 3) 종룡(縱龍) 연기(緣起) 水(수)-목(木)성(性) 變易(변역))
 - 之(지), 玄(현)자룡(字龍) 변화 특성
- 4) 은변(隱變) 연기(緣起) (水(수)-토(土)-금(金)성(性) 變易(변역))
 - 잠룡(潛龍),閃龍(섬룡) 특성
- 5) 수변(垂變) 연기(緣起) (목(木)-火(화)-토(土)성(性) 變易(변역))
 - 비룡(飛龍) 특성

나. 5변역(五變易)의 소응(所應)과 특성

- 1) 정변역(正變易)
 - 현무(玄武)↔과협(過峽), 入首(입수)↔頭腦(두뇌) 특성
- 2) 횡변역(橫變易)
 - 開帳(개장) 案山(안산)의 應氣(응기)와 전호(纏護) 특성
- 3) 종변역(縱變易)
 - 천심(穿心), 응축(凝縮), 호종(護從) 특성
- 4) 은변역(隱變易)
 - 평지(平地) 취돌(聚突) 특성, 사세(砂勢) 특성
- 5) 垂(수)變易(변역)
 - 祖山(조산), 玄武(현무), 入首(입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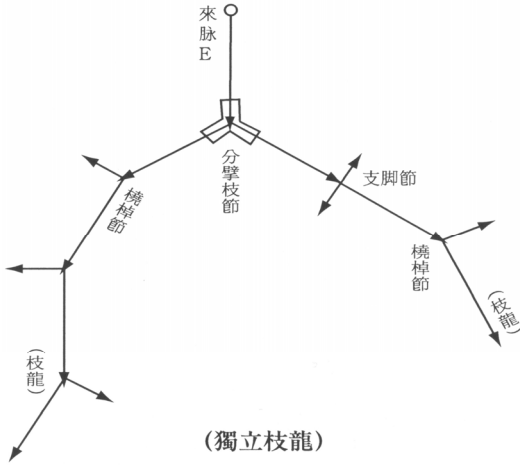
다. 山(산)의 사세(四勢)와 상호 인연(相互 因緣) 關係

- 1) 主勢(주세)
 - 조종(祖宗)勢(세), 地氣(지기) Energy 발로(發露)의 시원(始源)
- 2) 龍勢(용세)
 - 玄武(현무), 來龍(내룡)勢(세)(來脉(내맥)勢(세)) (主勢(주세)인(因) + 局勢(국세)緣(연))
- 3) 局勢(국세)
 - 靑龍(청룡).白虎(백호), 案山(안산)勢(세)(水勢(수세))(主勢(주세)인(因) + 案山(안산)緣(연)(水(수)), 또는 案山(안산)인(因)(水(수)) + 용세(龍勢)緣(연))
- 4) 穴勢(혈세)
 - 穴場(혈장)勢(세) 또는 明堂(명당)勢(세)(용세(龍勢)인(因) + 主勢(주세)緣(연) + 局勢(국세)緣(연))
- 5) 穴場(혈장)勢(세)
 - (入首(입수)頭腦(두뇌)勢(세)인(因)) + ((선익(蟬翼)세 + 明堂(명당)세 + 纏脣(전순)緣(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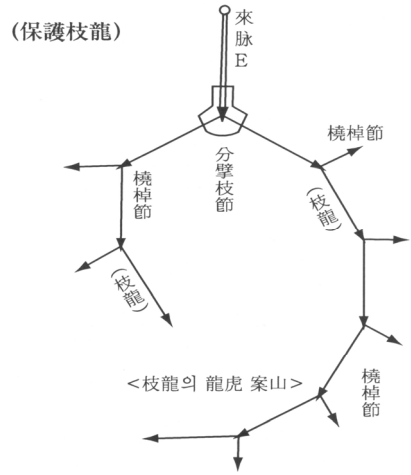
라. 흉산(凶山) 오격(五格)-5개산은 매장해서는 안 될 곳

- 1) 석산(石山) : 돌과 바위로 구성된 산
 - 토질(土質)이 없으면 생기(生氣)가 없다.
- 2) 단산(斷山) : 도로 공사 등으로 유입되는 산맥이 끊어진 산
 - 脉(맥)이 단절(斷折)되면 생기(生氣)가 끊어진다.
- 3) 과산(過山) : 산맥이 지나가는 중간의 산
 - 지맥(地脉)이 지나치므로 생기(生氣)가 머물지 않는다.
- 4) 독산(獨山) : 홀로 있는 산
 - 중산(衆山)의 회합(會合)이 없으면 생기(生氣)가 없다.
- 5) 동산(童山) : 민둥산
 - 바위나 언덕이 부서지고 무너지며 초목이 타 죽는 山(산)

〈그림 24〉 독립 지룡(獨立 枝龍)



〈그림 25〉 보호 지룡(保護 枝龍)



마. 分擘(분벽)枝節(지절)에 있어서의 枝龍(지룡)과 그 山(산)마디 독립 지룡은 자기 살길로 진행해 가는 가지 산맥이고〈그림 24〉, 보호지룡은 혈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청룡과 백호, 안산 역할을 위해 혈장을 향하여 회전하면서 혈장을 보호, 육성, 응축을 한다〈그림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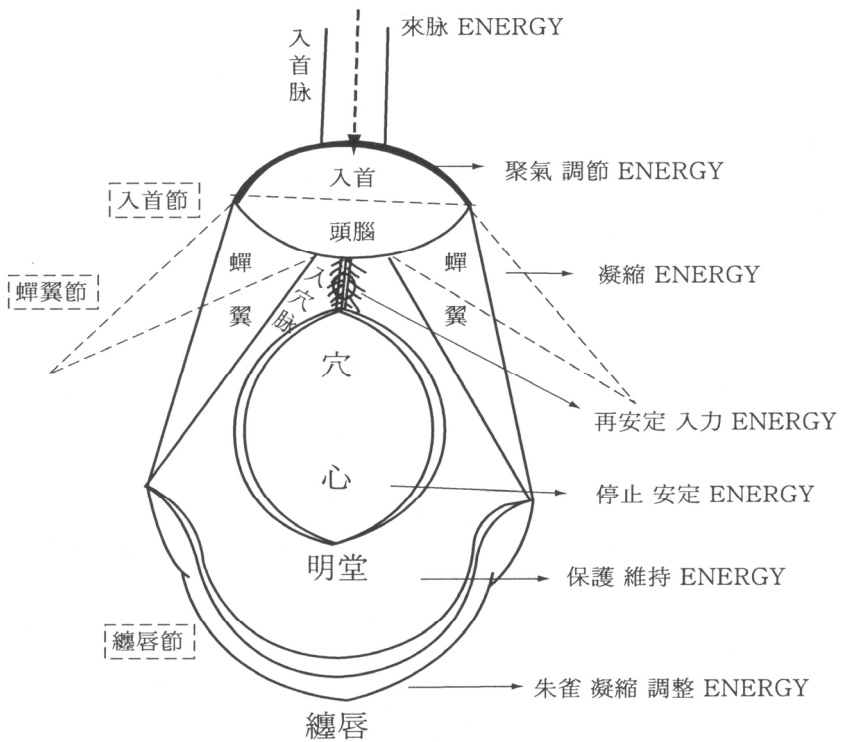
바. 입수절(入首節)에 있어서 입수두뇌(入首頭腦)와 혈성(穴星)의 발생 형태(發生 形態)

입수 내맥이 사신사의 Energy응축(凝縮)을 받아 그 균형점에 원정(圓正)한 산Energy를 취기(聚氣하여 입수 두뇌를 형성하게 되면, 그 취기두뇌는 자체의 완전한 재응축(再凝縮) 균형과 재안정(再安定) 구축을 위해 선익과 입수맥, 혈심, 명당, 전순을 발달시키게 되는데, 이들 균형 재안정 장치가 구축 형성될 때마다 발달되는 각각의 기본적인 응결마디 형태는 그 혈장내의 혈심을 중심으로 하나의 핵과를 형성하면서 원형 용기(容器)를 구성하여 혈성화하게 된다.



〈사진 5-7〉 토정 이지함의 묘 혈장

〈그림 26〉 혈장 상세도



따라서 圓形(원형) 穴場(혈장)은 山(산) Energy의 合成 凝縮마디가 얼마나 穴心(혈심) Energy를 잘 보호 生成(생성)시킬 수 있도록 容器(용기) 結合體(결합체)를 形成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그 善惡美醜(선악미추)와 大小(대소)強弱(강약)이 결정되는 것이다.

穴星(혈성)은 入首(입수)節(절)로부터 취기점(聚氣點) 1節(절), 양선익(兩蟬翼) 2節(절), 입수맥(入首脉) 1節(절), 전순(纏脣) 1節(절), 合計(합계) 5節(절)의 最小(최소) 構成節(절)이 形成되어야 穴心(혈심)이 만들어 지게 되는 것이다. 산 내맥(山來脉) Energy 흐름도 이처럼 3-5節(절)이상을 良好(양호)한 흐름 波動(파동)을 일으킬 때에만 비로소 완전한 穴心(혈심)Energy가 응축(凝縮)되기에 충분한 입력(入力)Energy 공급 조건이 形成된다고 볼 수 있다.

즉, 入首(입수) 前端(전단) 來脉(내맥)節(절) 3節(절) 이상 5節(절)까지는 강건하고 양호한 Energy體가 유지, 保全되고 있어야만 최소한의 穴星(혈성) 구성을 위한 기본적인 Energy 공급이 가능할 뿐 아니라, 穴場(혈장)을 재응축(再凝縮) 安定하기 위한 鬼(귀), 曜(요), 官(관)星(성)의 발달 餘力(여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入首(입수) 來脉(내맥) Energy가 入首(입수)頭腦(두뇌)에서 일시적 聚氣(취기) 安定을 취하는 것은 頭腦(두뇌) 이후의 停止(정지) 安定 조건을 구성하기 위한 兩(양)蟬翼(선익) Energy, 入穴(입혈) Energy 그리고 穴心(혈심)을 保護(보호), 凝縮하는 纏脣(전순)의 反(반)Energy 등이 가장 安定적으로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來脉(내맥) Energy를 재충적(再充積)함은 물론, 朱雀(주작) Energy를 調整(조정)하면서 入穴(입혈) Energy를 일정하게 安定 조절시키는 역할을 함

게 담당하고 있는 來脉(내맥) Energy 充積(충적)과 再(재)공급 조절 장치 기능을 다하도록 위함인 것이다.

그러한 理致(이치)에 따라서 入首(입수)頭腦(두뇌)에는 최소한 3節(절)이상의 來脉(내맥) Energy가 강건하게 흘러와 充積(충적)되어 질 때에 비로소 兩(양)蟬翼(선익)에 각각 1節(절)의 Energy 공급과 入穴(입혈) Energy와 明堂(명당), 纏脣(전순) Energy가 충실히 공급, 조절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사. 穴場 凝縮節(혈장 응축절)에서 鬼星(귀성), 曜星(요성), 官星(관성), 穴場(혈장)이 四神砂(사신사)의 均衡 凝縮 작용에 의해 1次(차)적 構造 형태를 形成하고 나면, 入力(입력) 來脉(내맥) Energy는 지속적으로 局(국) 同調 Energy場에 同和(동화)되어 穴心(혈심) Energy를 增幅(증폭)시키고 보다 향상 발전된 良質(양질)의 穴心(혈심) Energy場을 形成해 간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 1次(차)적 穴場(혈장) 凝縮 構造体(구조체)와는 다른 2次(차) 穴心(혈심) 凝縮 構造体(응축 구조체)가 발달하게 된다.

穴場(혈장) 后面(후면)에 발달하여 玄武(현무)를 중심으로 한 前進(전진) Energy를 入首(입수)頭腦(두뇌)에 再(재)凝縮 공급하여 入首(입수)頭腦(두뇌)와 入穴(입혈)脉(맥) Energy를 增幅(증폭)시켜 주는 것이 鬼星(귀성) Energy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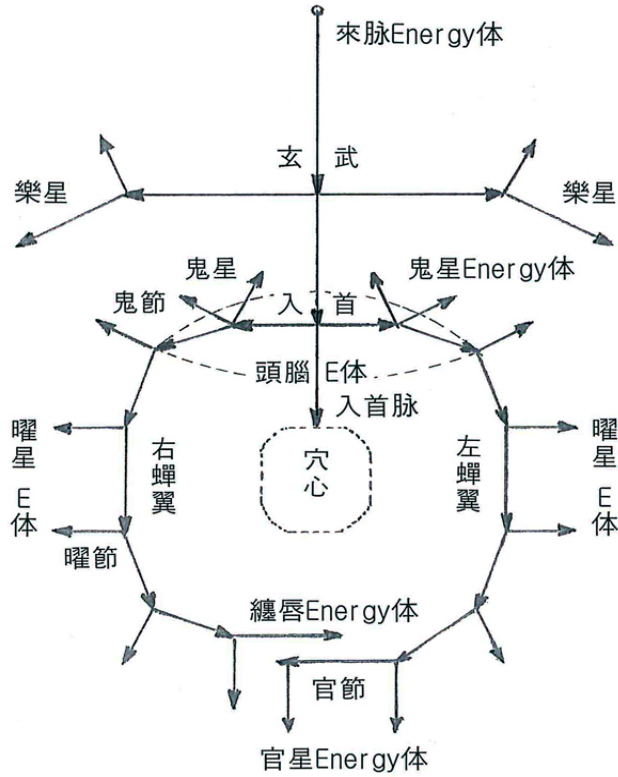
穴場(혈장) 左右(좌우) 또는 蟬翼(선익)에서 발달하여 靑龍(청룡). 白虎(백호)의 凝縮 同調 Energy를 2次(차)적으로 再(재)凝縮 공급함으로써 穴心(혈심)의 橫(횡) 同調 Energy場을 增幅(증폭)시켜 주는 장치기

曜星(요성) Energy体가 된다.

穴場(혈장) 前面(전면)에서 纏脣(전순) 또는 朱雀(주작)에서 발달하여 案山(안산) Energy体로부터 同調 凝縮된 纏脣(전순) Energy를 2次(차)적으로 再(재)凝縮 同調시킴으로서 穴心(혈심)의 縱(중) 同調 Energy場을 증폭시켜 주는 장치가 官星(관성) Energy体이다.

이와 같이 穴場(혈장)內(내)에서 再(재)凝縮 同調가 일어나게 되면 반듯이 再(재)凝縮 장치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 이 장치 發生(발생) 處(처)에는 Energy 變換(변환)節(절)이 발생하게 마련인데, 穴場(혈장) 內(내)에서 발생하는 鬼星(귀성)節(절), 曜星(요성)節(절), 官星(관성)節(절)을 總稱(총칭)하여 穴場(혈장) 凝縮節(절)이라고 한다.

〈그림 27〉 혈장(穴場) 응축절(凝縮節)의 구성(構成)과 형태(形態)



〈사진 5-8〉 혈장(바위 입수와 백호선익, 전남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산 207-2)

